

KEB 하나은행, 탈북 새터민을 위한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실시



KEB 하나은행은 ‘사회통합’과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낮은 대한민국 금융환경에서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을 약 3만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이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착과 자산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됩니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 확대시 지속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 사업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KEB 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최고 50만원 이내로 가입기간은 48개월입니다.

‘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30만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3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 1.5%와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 3.0%가 더해져 연 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17.3.13 기준, 세전)